

# 전남도, 해외관광객 300만명 유치 '속도'

## 대형 여행기업 3곳과 업무협약

## 버스타어·크루즈 등 상품출시

## 웰니스·먹거리 비교우위 극대화

전남도가 해외에서 국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여행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관광객 300만명 시대 개막을 위한 관광상품 출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 기간 롯데제이티비㈜, ㈜모두투어 인터내셔널, ㈜하나투어아이티씨와 '전남도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해외관광객 유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태국과 베트남에서 잇따라 전세계 유치 협약을 한데 이어 해외여행객을 모집하는 국내 여행기업이 전남 관광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기로 해 해외관광객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여행사는 주력 해외관광 시장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개발해 모집 활동과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들 여행사의 성공적 전남 여행상품 운영을 위해 행정편의 제공과 차별화된 해외관광객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의 여행기업인 롯데제이티비는 일본을 포함한 유럽, 남미 등 개별관광객(FIT)을 위한 '전남 버스타어 여행상품'을 오는 7월 출시할 계획이다.

또 해외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전남 맞춤형 여

행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모두투어인터내셔널은 대만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3월부터 중국발 입국자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가 면제되면서 중국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관광객에 특화된 고품격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하나투어아이티씨는 동남아, 구미주와 주한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웰니스, 케이(K)-콘텐츠 등 테마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해외관광객이 한

국을 찾을 때 주로 이용하는 국제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과 연계해 상품을 판매한다.

구미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서울과 전남을 방문하는 '내나라 여행 상품'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웰니스, 맛있는 먹거리 등 전남이 비교우위에 있는 관광자원과 대형 전문 여행사의 상품 기획력을 더한 전남 특화상품을 개발해 해외관광객이 많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광주시-전남도-양향자 의원-LG이노텍

# 지방소멸 극복·첨단전략산업 육성 '맞손'

광주시와 전남도, 양향자 국회의원, LG이노텍이 지역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양향자 국회의원, 정철동 LG이노텍 대표이사는 지난 24일 국가위기 극복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온라인을 통한 영상으로 진행됐다.

4개 기관·기업은 지방소멸·에너지·기후변화 위기 극복과 함께 광주·전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입법활동 지원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기정 시장은 "지자체·기업·입법기관이 함께 손잡는 협약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전반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요한 지렛대로 함께하는 광주와 전남은 새로운 시대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양향자 의원, 글로벌기업인 LG이노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단히 기쁘고 든든하다"며 "국가 위기 극복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힘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LG이노텍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광주·전남의 탄탄한

재생에너지 기반시설이 융합된다면 무한한 상승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동 LG이노텍 대표이사는 "이날 체결하는 상생협력 업무협약이 앞으로 기업·국회·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등 국가 위기 극복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인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길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장성군 장성을 장성댐을 방문,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상황을 청취하고 취수탑 등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김영록 지사, 장성호서 가뭄대책 점검

### 영농철 특단대책 주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나주·함평·장성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장성호를 방문해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용수 사전 확보 등 영농에 차질 없도록 특단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광주·전남지역은 지난해 누적강수량 844mm(평년대비 61%)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현재 누적강수량 93mm(평년대

비 73%)를 기록중이다. 이는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남지역 농업용 저수지 총 3,208개의 평균 저수율은 54.7%로 평년의 8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도내 저수율의 40.8%를 차지하는 나주·담양·광주·장성호 등 4대호 저수율은 37.9%로 도내 평균 저수율을 밑돌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저수율로 5월 모내기

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5월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6월 영농기에는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저수지 물 채우기,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지난해부터 가뭄이 계속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하천용수나 저수지 중 저수율 여유가 있는 지역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 등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근산 기자

## 전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중단 없다

### 도 자체 사업비 13억 확보

### 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도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우수한 전남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태어날 아이에게 건강을 선물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22년까지 3년간 농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올해 정부예산 미비영역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전남도는 13억원을 투입해 올해

부터 자체사업으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다.

지원을 바라는 임산부는 4월 14일까지 출생증명서·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쇼핑몰(www.ecoemall.com)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추첨을 통해 2,796명을 선정해 본인부담금 9만 6,000원을 포함해 1인당 연 48만원 상

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선정된 임산부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기농축산물, 유기농공식품 등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금액 중 본인부담금 20%를 결제하면 구매한 친환경 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으며, 주문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유덕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26일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임산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광주 대규모 소각장 후보지 내달 공모

### 29일 첫 시민 보고회

광주시가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쓰레기 직매입 금지 조치에 대비해 추진하는 대규모 소각장 건립 후보지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광주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소각)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시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용역은 광주시가 2030년부터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입이 금지되는 상

황에 대비하고 지역 내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용역은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하는 첫 단계인 기본구상 용역으로,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은 여가공간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최소화, 에너지 활용 극대화 등을 통해 기피시설이 아닌 환경 친화형 시설로 구축된다.

보고회는 지난 2월 실시한 소각시설 관련 설문조사(광주on)에서 '투명한 절차 공개 및 소통'을 원하는 의견을 반

영하고, 자원회수시설(소각) 추진계획(안)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픈형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2030년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시설규모 ▲부지면적과 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 ▲시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물질 관리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시설계획을 확정하고, 4월 중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할 예정이다. 공모 결과에 따라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 /길용현 기자

www.hdamis.com

##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기업

### 현대아미스는 오늘도 정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

경비용역

청소·미화

소독·방역

**현대아미스그룹**

현대아미스(주)	아미스(주)	(주)한솔티엠에스
한솔엘리베이터(주)	(주)아미스능력개발원	(주)도곡전기엔지니어링
(주)아미스개발	메인기획협동조합	복지TV호남방송

**회장 김우열**

광주 서구 상무대로 673번길 8 (마륵동 173-8번지)  
T.062)225-1050 FAX.062)463-7300